

KT&G, 전용스틱 '핏 아이시스트' 출시

KT&G(사장 백복인)가 켈런형 전자담배 '필 솔리드 2.0'의 전용스틱인 '핏 아이시스트(Fit ICE+EST)'를 24일 전국에 동시 출시했다. '핏 아이시스트'는 앞서 출시된 '핏(Fit)' 제품들보다 강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부스트 타입 제품이다. 판매 가격은 각각 4500원이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선정, '2021 대한민국 올해의 차'는 제네시스 G80

역동적 우아함 'G80'... "브랜드 완성도 높여"

부문별 톱3 30대 차량 대상 1·2차 실차테스트 G80, 여백의미 갖춘 실내·첨단사양 등 매력 2위 GV70·3위는 GV80으로 제네시스가 독식 타이칸 4S 등 고성능 전기차 상위권 차지 눈길



(사)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24일 '2021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차는 제네시스 G80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제네시스 G80은 역동적인 우아함을 담은 외관과 한국적인 여백의 미를 갖춘 실내, 균형 잡힌 성능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제공 | (사)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2021 부문별 올해의 차		
부문	차명	제조사
올해의 소형 세단(중중형 포함)	올뉴 아반떼	현대차
올해의 중형 세단	뉴 5시리즈	BMW
'2021 올해의 차' 올해의 대형 세단	G80	제네시스
올해의 소형 SUV(CUV포함)	XM3	르노삼성
올해의 중형 SUV(CUV포함)	GV70	제네시스
올해의 대형 SUV(RV포함)	GV80	제네시스
올해의 전기차 세단 부문	조에	르노
올해의 전기차 SUV 부문	e트론	아우디
올해의 디자인	XM3/GV70 공동수상	르노삼성/제네시스
올해의 하이브리드(PHEV 포함)	쏘렌토 하이브리드	기아
올해의 고성능 내연기관	벨로스터N	현대차
올해의 고성능 전기차	타이칸 4S	포르쉐

'제네시스 G80'이 2021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 올랐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24일 '2021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차는 제네시스 G80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G80은 각 부문별 톱3에 오른 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 2차 실차테스트에서 4807.5점을 얻어 '2021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2위는 4741.3점을 얻은 GV70이, 3위는 4679.5점을 얻은 GV80이 차지했다.

(사)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영문약칭 AWAK)는 22일 경기도 포천 레이스웨이 서킷에서 부문별 톱3에 오른 3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1, 2차 실차테스트를 치렀다. 포천 레이스웨이는 올 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포천시의 양해를 얻어 최종 시설점검을 겸해 올해의 차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다.

●1차 테스트로 12개 부문별 올해의 차 선정

3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1차 실차테스트에서는 12개 부문별 올해의 차가 결정됐다. ▲올해의 소형 세단(중중형 포함)은 '올뉴 아반떼(현대차)' ▲올해의 중

형 세단은 '뉴 5시리즈(BMW)' ▲올해의 대형 세단 'G80(제네시스)' ▲올해의 소형 SUV(CUV포함) 'XM3(르노삼성)' ▲올해의 중형 SUV(CUV포함) 'GV70(제네시스)' ▲올해의 대형 SUV(RV포함) 'GV80(제네시스)' ▲올해의 전기차 세단 부문(해치백 포함) '조에(르노)' ▲올해의 전기차 SUV 부문 'e트론(아우디)' ▲올해의 디자인 'XM3(르노삼성)' 'GV70(제네시스)' ▲올해의 하이브리드(PHEV 포함) '쏘렌토 하이브리드(기아)' ▲올해의 고성능 내연기관 '벨로스터N(현대차)' ▲올해의 고성능 전기차 '타이칸 4S(포르쉐)'가 각각 선정됐다. 르노삼성 XM3는 올해의 소형 SUV와 올해의 디자인을 중복 수상했다.

●2차 테스트서 '제네시스 G80' 2021 올해의 차로 선정

왕중왕을 뽑는 2차 실차테스트는 부문별 올해의 차 11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대의 후보들은 디자인, 퍼포먼스, 편의·안전, 경제성, 혁신성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심사를 받았다.

디자인은 전면, 측면, 후면, 실내, 소재·공간 등 5개 소항목으로, 퍼포먼스는 가속감, 제동력, 변속성능, 선회·조향성, 주행안정성, 승차감, 정숙성 등 7개 소항목으로, 편의·안전은 편의장비, 인포테인먼트, 안전장비 등 3개 소항목으로, 경제성은 가격, 연비, 정비성, 기타 유지비 등 5개 소항목으로, 혁신성은 신기술, 혁신 디

자인, 혁신 콘셉트 등 3개 소항목으로 나눠 정밀한 평가를 치렀다.

2차 실차테스트 심사 결과 '올해의 자동차' 타이틀은 G80이 차지했다. 제네시스 G80은 역동적인 우아함을 담은 독보적인 외관과 한국적인 여백의 미를 갖춘 실내, 균형잡힌 성능과 첨단 안전 사양 등을 적용해 제네시스를 완벽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2013년 기아자동차 'K9'-렉서스 '뉴 ES', 2014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2015년 인피니티 'Q50', 2016년 현대자동차 '아반떼', 2017년 르노삼성자동차 'SM6', 2018년 기아 '스팅어', 2019년 현대자동차 '팔리세이드', 2020년 기아 '신형 K5'를 '올해의 차'로 뽑아 시상했다.

하영선 (사)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회장은 "상위권을 제네시스 브랜드가 독식한 가운데, 고성능 전기차들이 그 뒤를 잇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네시스는 2020년을 기점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타이칸 4S, e트론, 쏘렌토 하이브리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친환경 전동화 시대가 본격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1 대한민국 올해의 차' 시상식은 3월 10일 오후 2시 서울 흥동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롯데마트,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실시

같은 직급 10년 유지 직원 대상...무기계약직 제외

롯데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 회사는 24일 오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사원부터 부장까지 전 직급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을 공지했다. 전 직원 4300여 명 중 같은 직급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직원이 대상이다. 캐셔(계산원) 등 무기계약직은 제외된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기본급의 27개월 분을 지급하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자녀 1인당 학자금 50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롯데마트 측은 "실적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희망퇴직은 100% 신청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최근 3년 간 누적 영업적자가 660억 원에 이르는 등 부진을 겪고 있다. 위기 타개를 위해 지난해 12개 점포를 폐점하고 하반기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기도 했다. 올해도 수익이 부진한 점포를 추가 폐점할 예정이다.

'라임판매' 우리·기업銀, 65~78% 배상

금감원 보조위 결정, 라임펀드 사후정산형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68%와 78%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1명에 대해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의 경우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손해가 확정되기 전에 손해추정액을 근거로 배상하는 라임펀드 사후정산형 분쟁조정이다. 지난해 KB증권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은행권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은행 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우리은행 측은 "당국에서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20일 이내 수락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다"며 "3월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쌍용양회, '쌍용C&E'로 사명 변경

시멘트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 쌍용양회가 사명을 '쌍용C&E'로 변경한다.

쌍용양회는 3월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명을 승인 받은 후 공식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C&E는 시멘트(cement)와 환경(environment)의 앞글자를 딴 이름이다. 새로운 사명에는 환경사업으로의 영역확장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홍사승 쌍용양회 회장은 "시멘트 사업을 기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SPC그룹-논산시, 농산물 소비 활성 상생협약



SPC그룹과 논산시가 24일 충남 논산시청에서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상생경영 철학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한 '행복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강원평창군 감자 농가 및 제주 구좌당근 농가 돕기에 이어 세 번째다.

SPC그룹은 논산의 대표 농산물인 딸기를 비롯해 토마토, 채소 등을 약 1000톤 수매해 이를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차, 코나EV 전량 리콜... "화재원인은 배터리 불량"

코나 등 전기차 3종 2만6698대 리콜 LG엔솔 "배터리셀 화재원인 아니다" 현대차·LG엔솔, 교체비용 분쟁 예고



대구 칠곡에서 발생한 코나 EV 화재(왼쪽) 영상과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인위적인 화재를 통해 재현한 배터리셀 내부 열 폭주 시험 영상. 두 영상은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현대차 코나 EV, 아이오닉 EV, 전기버스 일렉시티 등 총 2만6698대가 전량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4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66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은 셀 제조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다.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OS EV) 2만15083대, 아이오닉 전기차(AE PE EV) 1314대, 일렉시티(전기버스, LK EV) 302대 등 총 2만6699대이며, 해당 차량들은 3월 29일부터 고전압배터리시스템(BSA)을 모두 교체하는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

ATR)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리콜로 수거된 고전압 배터리 정밀조사와 함께 화재 재현실험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자동차안전연구원과 관련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위적인 화재 재현실험을 통해 배터리셀 내부 열 폭주 시험에서 발생한 화재 영상이 실제 코나EV 화재 영상(대구 칠곡 CCTV)과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리콜로 수거된 불량 고전압 배터리 분해 정밀조사결과 셀 내부 정렬 불량(음극탭 접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재 화재 재현실험 중인데 현재까지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리콜 사유인 배터리 셀 내부 정렬 불량인 경우 재현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대차의 BMS 충전전압 오작동의 경우 당사가 제안한 급속충전 로직을 현대차에서 BMS에 잘못 적용한 것을 확인했고, 화재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조해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에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1조 원대로 예상되는 배터리 교체 분담금 분쟁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4연임 성공



김정태(사진) 하나금융 회장이 사실상 4연임에 성공하며 금융권 최장수 최고경영자(CEO)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4일 김 회장을 임기 1년의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윤성복 하나금융 회추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직의 안정 및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글로벌 및 ESG 분야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김정태 회장이 최고 책임자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다.

정정욱 기자